

- 기관 신청안에 대해 소관부서가 검토하여 조정하고 경영예산 심의회 심의를 받아 금융위원회(12.28일)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음

< 총 예산 : ('16년) 24,670억원 → ('17년) 24,725억원 : 0.2% 증가 >

- 금융 공공기관의 '17년 예산은 신청안 대비 평균 △4.5% 삭감되어 전년 대비 평균 0.2% 증액\*된 수준

※ 장기('15~'19년) 계획에 따라 기 반영되어 있었고 금년분으로 소요되는 산은의 차세대시스템 및 IT센터 구축 예산(1,718억원) 포함시 6.5% 증액

- 지방 사육 신축(캠코), 인력증원에 따른 교육비(예보)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토록 하되,
- 은행 IT 예산(산은, 수은) 등은 기관 특이소요를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심의

\* (캠코) 지역본부 예산(△405억원 삭감) 등

기관명 (단위: 억원)	2016년 예산 (A)	2017년 요구 (B)	예산 승인 (C)	증감액			
				요구대비 (C-B)	%	전년대비 (C-A)	%
산업은행	8,943	10,893	10,369	△524	△4.8%	1,426	15.9%
(특이소요 제외시)	8,447	9,243	8,718	△525	△5.7%	271	3.2%
중소기업은행	8,901	9,227	9,227	-	-	326	3.7%
수출입은행	2,335	2,214	2,197	△17	△0.8%	△138	△5.9%
주택금융공사**	1,174	1,182	1,172	△10	△0.8%	△2	△0.2%
예금보험공사	1,199	1,551	1,308	△243	△15.7%	109	9.1%
자산관리공사	2,318	2,816	2,220	△596	△21.2%	△98	△4.2%
계	24,870	27,883	26,493	△1,390	△5.0%	1,623	6.5%
(특이소요 제외시)	24,673	25,894	24,725	△1,169	△4.5%	52	0.2%

\* 기업은행은 「중소기업은행법」상 인건비만 심의 대상 (총 인건비)

< 주요 편성 내역 >

- ① 인건비 : 타 공공기관 대비 1인당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 공공기관은 2.5%, 낮은 기관은 3.5%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금융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

※ 산은(9,358만원), 수은(9,237만원), 예보(8,481만원) : 2.5%,  
기은(7,763만원), 캠코(7,623만원), 주금공(7,943만원) : 3.5%